

한국가스공사 사장 선임안건 부결

한국가스공사는 9월15일 실시한 임시주주 총회에서 사장후보 5인 모두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함에 따라 사장 선임안건이 부결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제2호 의안인 사장 경영계약서 승인안건 역시 함께 부결됐지만 3호 의안인 정관 일부변경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별도 공시에서 9월30일 예멘 LNG 주식 6%를 취득하기 위해 279억여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5/09/16>